

2020년 6월 12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2차 팬더믹 우려로 3월 이후 최악의 하루 금융, 기술, 소매, 항공, 산업재 모두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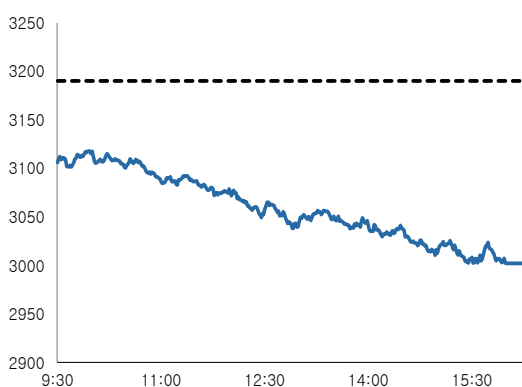
### 미 증시 특징: 변화하는 시장

미 증시는 FOMC 이후 본격적으로 팬더믹탈에 주목하며 매물이 출회. 특히 경제 재개를 발표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등 2차 팬더믹 가능성이 높아지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 이는 하반기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을 높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다만, 일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기업들의 경우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등 차별화도 특징(다우 -6.90%, 나스닥 -5.27%, S&P500 -5.89%, 러셀 2000 -7.58%)

전일 FOMC 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하반기 경기 회복을 보이겠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이는 코로나 재확산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시사. 이런 가운데 시장은 실적을 비롯한 개별 기업 등의 팬더믹탈에 기반해 변화하는 등 차별화를 보였음. 즉 FOMC 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 시장의 성격이 변화하는 경향.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증시는 이미 알려져 있었던, 그리고 애써 외면해왔던 경제 재개 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에 반응을 보이며 하락. 물론 므누신 재무장관은 “2차 팬더믹이 와도 경제 섯다운은 없다” 라고 발표했고, 백악관에서도 “4차 코로나 부양책은 7월말에 발표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시장 안정 조치가 있었음. 그렇지만, 코로나의 재확산은 경제 섯다운이 문제가 아니라 위축된 소비를 더욱 위축 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소매, 항공, 자동차, 물류, 금융 업종 등의 하락을 부추김. 특히 금융의 경우 대출 수요 및 신용 품질의 의문이 제기된 이후 전일에 이어 급락을 이어감.

반면, 2차 팬더믹이 될 경우 언택트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전 기대가 높아지며 줌비디오(+0.48%) 등은 견고한 모습을 보였으며, 월마트(-0.88%), 타겟(-1.66%) 등 대형 소매판매 업종의 경우 배당 상향 조정과 판매 품목 다변화로 인한 실적 부진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낙폭이 제한. 결국 시장은 그동안 외면해 왔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급증을 이유로 실적 부진이 확실시 되는 기업과 팬더믹탈 대비 과도한 상승을 보였던 기업들 위주로 조정을 보이며 3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임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76.78	-0.86	홍콩항셱	24,480.15	-2.27
KOSDAQ		757.06	-0.21	영국	6,076.70	-3.99
DOW		25,128.17	-6.90	독일	11,970.29	-4.47
NASDAQ		9,492.73	-5.27	프랑스	4,815.60	-4.71
S&P 500		3,002.10	-5.89	스페인	7,278.00	-5.04
상하이종합		2,920.90	-0.78	그리스	644.90	-2.68
일본		22,472.91	-2.82	이탈리아	18,806.86	-4.8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언택트, 경기 민감주 모두 급락

웰스파고(-9.83%)가 전일 부실대출 우려를 표명한 이후 대출 수요 부진과 신용 품질 우려가 높아지며 급락세를 이어갔다. 더불어 국채 수익률 하락도 급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2차 팬더믹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기업들과 가계 신용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지자 관련 매출이 많은 씨티그룹(-13.37%)도 낙폭이 컸다. 이로 인해 JP모건(-8.34%), BOA(-10.04%) 등도 급락을 이어갔다. 상업용 부동산 리츠 회사인 사이몬 프로퍼티(-13.36%), 리얼티 인컴(-6.84%), 아메리칸 타워(-5.21%)도 부진했다. 더불어 델타항공(-14.03%)과 아메리칸 에어라인(-15.51%) 등 항공사, 부킹닷컴(-8.36%) 등 여행주, MGM(-13.02%) 등 리조트, 카지노, GM(-7.83%), 포드(-9.99%) 등 자동차, 유니온퍼시픽(-6.92%) 등 물류회사들도 하반기 경기 회복 지연 우려로 급락했다.

애플(-4.78%)은 투자의견 상향 조정이 발표되었으나 차익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MS(-5.37%), 알파벳(-4.29%), 페이스북(-5.24%) 등 대형 기술주는 물론 마이크론(-7.53%), NVIDIA(-6.09%) 등도 차익 매물 출회 되었다. 반면, 줌비디오(+0.48%)는 물론 배당 상향 조정을 발표한 타겟(-1.66%)과 매출 다변화로 실적 부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월마트(-0.88%) 등은 낙폭이 제한되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9.47%	대형 가치주 ETF(IVE)	-6.52%
에너지섹터 ETF(OIH)	-14.38%	중형 가치주 ETF(IWS)	-6.72%
소매업체 ETF(XRT)	-5.49%	소형 가치주 ETF(IWN)	-8.38%
금융섹터 ETF(XLF)	-8.18%	대형 성장주 ETF(VUG)	-5.29%
기술섹터 ETF(XLK)	-5.73%	중형 성장주 ETF(IWP)	-5.4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4.50%	소형 성장주 ETF(IWO)	-6.98%
인터넷업체 ETF(FDN)	-4.98%	배당주 ETF(DVY)	-6.43%
리츠업체 ETF(XLRE)	-6.18%	신흥국 고배당 ETF(DEM)	-5.39%
주택건설업체 ETF(XHB)	-7.5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3.78%
바이오섹터 ETF(IBB)	-4.45%	미국 국채 ETF(IEF)	+0.35%
헬스케어 ETF(XLV)	-5.56%	하이일드 ETF(JNK)	-2.55%
곡물 ETF(DBA)	-1.38%	물가연동채 ETF(TIP)	+0.03%
반도체 ETF(SMH)	-6.14%	Long/short ETF(BTAL)	+6.6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91.39	-9.45%	-6.95%	+7.71%
소재	338.44	-7.74%	-7.50%	+8.04%
산업재	568.41	-7.05%	-6.45%	+14.04%
경기소비재	1,009.09	-4.91%	-1.84%	+9.65%
필수소비재	593.11	-3.81%	-2.51%	+1.57%
헬스케어	1,126.67	-5.63%	-4.63%	-1.76%
금융	382.62	-8.18%	-8.56%	+11.83%
IT	1,721.96	-5.81%	-0.73%	+6.72%
커뮤니케이션	178.44	-4.64%	-2.03%	+6.01%
유틸리티	296.64	-3.98%	-2.75%	+6.46%
부동산	213.07	-6.26%	-3.78%	+10.7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기다림의 미학

MSCI 한국 지수 ETF 는 5.50%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5.22%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5.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약 8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2 차 팬더믹에 대한 우려로 3 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였다. 이는 전일 한국 증시에서 이미 제기된 이슈 였다. 그렇지만 전일 한국 증시는 선물옵션 만기일임을 감안 장 막판 수급적인 요인으로 낙폭을 축소했다. 이는 오늘 장 초반 되돌림이 있을 것을 예상케 한다.

한편, 미 증시 특징을 보면 2 차 팬더믹이 기정 사실화 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록 섀도우는 없을 수 있으나 소비 둔화 가능성은 더욱 높였다. 이 결과 일부 한계기업들의 경우 급락을 했으며,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진 기업들의 경우 낙폭이 컸다. 즉 2차 팬더믹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 시켰으며 이는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물 출회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 증시에서 금융주가 전일에 이어 급락을 이어갔다. 전일 부동산 대출이 많은 웰스파고가 부실대출 우려를 제기하는 등 대출 수요 및 신용 품질의 의문이 제기된 점이 급락 요인이었다. 이는 하반기 한계기업들의 파산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 우려를 자극한 점도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조정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 3월의 경우와 다른 점은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 증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지속되고 있어 급락세를 지속하기 보다는 실적 호전 기업 위주로 기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 증시 마감 후 어도비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후 시간 외로 4%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불안한 고용시장 지속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189.7 만건) 보다 감소한 154.2 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예상치인 156.5 만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많은 청구건수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불안 우려가 여전한함을 보였다.

5 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 전월(mom -1.3%)은 물론 예상(mom +0.1%)를 상회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는 전월 대비 0.1% 하락해 예상에 부합됐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8% 넘게 급락

국제유가는 전일 반영이 되지 않았던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2 차 팬더믹으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동반하며 8% 넘게 급락했다. 특히 전일 파월 연준의장이 하반기 경기 회복이 기대되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여전해 불확실성이 높다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 경기 회복 지연 우려를 더욱 높였다.

달러화는 경기회복 지연 우려 속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엔화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호주달러, 캐나다 달러, 브라질 헤알화 등 상품 관련 환율은 경기 회복 지연 우려 속 달러 대비 2% 넘게 약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었다.

국채금리는 2 차 팬더믹으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높아지자 장기물 위주로 하락했다. 특히 주가 지수가 지난 3 월 이후 하루 낙폭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장세가 펼쳐지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전일 FOMC 이후 하락한 점을 감안 단기물의 경우는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한편, 30 년 국채입찰에서는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32 배) 보다 낮은 2.30 배를 기록했으나 영향은 제한 되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1% 넘게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6.34	-8.23	-2.86	Dollar Index	大	+0.87	+0.12
브렌트유	38.55	-7.62	-3.60	EUR/USD	1.1289	-0.75	-0.43
금	1,739.80	+1.11	+0.72	USD/JPY	106.89	-0.21	-2.07
은	17.889	+0.52	-0.95	GBP/USD	1.2590	-1.23	-0.06
알루미늄	1,601.50	-1.60	+1.97	USD/CHF	0.9442	+0.04	-1.18
전기동	5,764.50	-2.41	+4.18	AUD/USD	0.6847	-2.16	-1.37
아연	2,007.00	-0.67	-1.28	USD/CAD	1.3626	+1.60	+0.93
옥수수	335.00	+0.98	+0.53	USD/BRL	4.973	+1.48	-1.82
밀	505.75	-1.12	-4.12	USD/CNH	7.0809	+0.38	-0.39
대두	876.75	-0.03	0.00	USD/KRW	1196.40	+0.44	-1.83
커피	97.70	-0.86	-2.01	USD/KRW NDF1M	1205.75	+1.24	-0.9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64	-6.22	-15.93	스페인	0.624	-5.00	+7.10
한국	1.382	-0.30	-4.50	포르투갈	0.597	-4.00	+7.50
일본	0.011	-1.40	-2.50	그리스	1.306	-7.00	-6.80
독일	-0.414	-8.30	-9.40	이탈리아	1.497	-5.20	+7.90